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4월 1일(금)  
---(윤력 3월 1일)---  
Пятница  
1 апреля 2022г.  
№ 12 (11979)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4월 1일은 만우절이다. 매년 이날에는 악의 없이, 가벼이 서로 속이면서 즐기는 날이다. 러시아에는 명절이나 공휴일은 아니지만 웃음의 날을 잘 즐긴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 사할린, 러시아 월드스킬 대회 예선 개최

러시아 월드스킬(WorldSkills Russia) '청년 기능인' 전국 선수권대회 진출권 획득을 위한 예선전과 10회 전국 선수권대회의 일부 종목 총 결승전이 4월 4일부터 24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다. 이에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연해주, 바슈코르토스탄, 톰스크를 포함한 전국 40개 지역의 전문가들과 참가자, 수행원들을 포함해 3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예선전과 결승전에서 경기 참가자들은 9개 종목에서 실력을 펼치게 된다.

예선전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사할린 대표팀에 들어가 9월 사란스크에서 열리는 전국 선수권대회 결승전에 출전하게 된다. 10회 전국 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겨루게 될 몇몇의 종목은 이미 예선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선수권대회 결과에 따르면 사할린주는 전국 85개 행정자치지역 중 8위를 차지했다.

## 2022년 사할린의 약 3,000가구, 첫째 아이 수당 받아

2022년에 사할린의 약 3천 가구에 첫 아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었다. 지급액은 자녀를 위한 지역 월 최저생활비 정도인 1만8천 루블이다.

"자녀수당은 아이가 3세 미만일 경우 한하며 자녀가 1세, 2세가 될 때마다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신청은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만이다. 자녀의 탄생 6개월 내 지급 신청서 제출 시 탄생한 날부터 계산해 지급되며, 나머지 경우는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기부터 지급된다."고 막심 페친 주 사회복지부의 사회적 지원금의 현대화 분과 과장이 설명했다.

첫 아이 탄생 및 첫 임양아와 관련된 월 자녀수당은 가정의 1인 근로소득이 근로능력이 있는 주민의 지역 최저생활비의 2배가 넘지 않는 3만7천516루블리 이하일 때 지급한다. 수당 계산 시 가정의 12개월간 소득이 고려된다.

지급 신청서는 거주지의 사회지원센터과에 제출할 수 있고, 고스우슬루기(국가 서비스)사이트를 이용해 전자상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첫 자녀 탄생 및 임양 시 월 자녀수당 지급은 '주민 통계학' 국가 기획 시행의 일환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사할린주에서는 매해 평균 3천700가구 이상이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1학년 학생 2,800명 입학 준비 완료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교육관리국(2022-2023학년 초등 1학년 입학 요강)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교육관리국 스웨틀라나 미로와 국장은 입학생들을 위한 100개 학급을 개설해 2800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학생 신청 접수는 연방 교육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계획되는데 4월 1일부터 1차 신입생 지원 접수가 시작되어 6월 30일까지 지속된다. 이 기간에 앞으로 입학할 학생의 부모가 일정한 거주지역에 상주하고, 교육기관 때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입학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7월 4일부터 2차 입학 지원 접수가 9월 5일까지 진행되는데 이는 입학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여도 학교에 입학하길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학교 입학생의 연령은 6.5세 이상부터 9월 1일까지 8세 이하여야 하며 만약 그 이상 또는 이하의 연령일 경우 교육국에 입학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 입학생들은 입학시험 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으며, 입학 지원서는 주로 교육서비스 포털을 통해 제출한다.

## 단신

### 사할린에서 러시아 장애인 알파인스키 선수권대회 진행

3월 29일-30일 이틀간 러시아 장애인 알파인스키 선수권대회가 유즈노사할린스크 '고르니 워즈두흐'스포츠 관광단지에서 진행되었다.

알파인스키 경기는 회전, 슈퍼대회전, 대회전, 슈퍼 복합 종목에서 펼쳐졌다.

장애인 스키 선수들을 위한 러시아 선수권대회는 벌써 6회째 '고르니 워즈두흐'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캄차트카, 알타이 변경, 이르쿠츠크, 케메로워, 사할린주의 선수들 15명이 참가했다.

### 일본 총리, "사할린-2 프로젝트 포기하지 않을 것"

일본은 에너지 자원을 계속 구매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할린-2 석유가스 프로젝트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목요일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의회 연설에서 발표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 사할린주에 6개월치 의약품 확보

필수 의약품들이 사할린 지역의 보건기관과 약국들에 충분히 확보된 상태다. 또한 주내 수입 약품들을 러시아의 유사 약품으로 대체하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주 정부 회의에서 밝혔다.

"평균 6개월치의 의약품을 확보해 비축해 두었다. 이전에 수요의 확대로 일시 부족했던 의약품 문제가 이제는 없을 것이다. 모든 약품은 확보되었으며 유사 약품들도 일반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염려할 것 없다."고 주 보건부 장관 블라디미르 쿠즈네초프가 말했다.

회의에서는 식량 안보 문제도 거론된 가운데 관계 부처 전문가들에 따르면 식물성 기름, 곡물, 밀가루, 설탕 등 1차 필수식품들도 안정적으로 비축돼 있다고 전했다.

지난주 주내 설량 수요는 3배 감소했다.

### 2.5개월간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도로 및 주택가 도로 보수 공사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정기 토요시찰로 주 중심지를 돌아보며 6월 12일 러시아의 날까지 도로 보수공사를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보수공사의 면적은 도로 10만㎡ 이상과 330곳의 주택가 거리다.

대규모 주택가 웅덩이 보수공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333개의 주택가 도로가 보수되고, 주 전체로는 700개 보수공사가 진행된다. 남부지방에서는 4월 1일부터 공사가 착수되고 북부지역은 눈이 녹기 시작할 때 시작할 예정이다. 주지사는 도로 보수공사가 시행되는 지역이 표시되는 도로 지도를 작성해 작업을 지시하고 있다.

새고려신문

## 2022년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동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출장소장이 되고 싶습니다.'

##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박상태 소장과의 인터뷰

지난 2월 21일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신입소장으로 **박상태**(1969년생) 외교관이 부임하였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독자 여러분들께 신입소장을 소개하고자, 박상태 소장과의 인터뷰를 하였다.

**- 소장님께서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에 부임하실 때 신문에 간단히 경력을 소개하셨지만 고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학력도 궁금합니다.**

- 저의 고향은 대구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상북도 성주 출신이시고, 어머니는 바로 옆의 구미 출신이시지만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대구에 거주 중입니다.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에 외교부에 입부했습니다.

**- 왜 외교관이 되고자 하셨는지요?**

- 외교부에 들어간 동기는 사실 어릴 적 꿈이 외교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87년에 대학교를 입학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과 구소련이 수교가 되기 전이었고, 아시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가 냉전 중이었습니다. 구소련에서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면서 냉전도 끝나는 상황이었을 때 제가 전공이 정치외교

학이다 보니 소련의 사회주의개혁이 데올로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한국에는 민주화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대학생들은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저 또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 1993년에 결혼하고 외교부에 입사하기 전에 모스크바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러시아어를 공부하면서 '러시아는 상당히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외교부에 지원하게 되었고 저의 꿈을 이루게 된 셈입니다.

**- 그럼 모스크바에 가서서 러시아어 공부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모스크바로 가게 된 이유는 러시아가 대한민국과 1990년도에 수교를 했지만 한국에서는 러시아어를 배울 만한 학원이라든지 시설, 교육기관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거주하는 대구에는 학원이 없어서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 것 보다는 모스크바 유학이 더 낫겠다 싶어서 모스크바에서 1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 경제도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유학 이후에 외교부 입부 시험에서 러시아어를 선택해서, 입부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입부하자마자 통상 관련 러시아과에 근무



를 했고 1998년에는 모스크바에서 다시 언어 연수를 했습니다.

**- 러시아 주재 여러 공관에서 일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 첫 번째 공관이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이었고, 두 번째가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그 다음은 주노르웨이대사관,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주피지대사관 그리고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에서 다시 근무했습니다.

**- 오래전에 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근무 시 사할린에도 출장 오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첫 해외근무지가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이었습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에서 근무했는데, 그 때 제가 담당할 업무가 러시아 극동지역 고려인동포와 사

할린에 계신 한인 동포사회 지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사할린에 총영사관 출장소가 생기기 전이지만 담당업무 관계로 사할린에 출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김해에 살고 계시지만 당시 사할린주 한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하신 박해룡님과 현재 주한인협회 김홍지 고문님, 그리고 우리말방송국 김춘자 국장님, 전 새고려신문사 안춘대 사장님 등 많은 분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출장을 3~4번 왔었습니다. 2004년에 한인문화센터 건물 부지를 선정하고 착공식을 할 때 출장을 왔었습니다.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런지, 이번엔 사할린에 부임해 근무하게 되었을 때 낯설고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 출장소 업무의 주요 목표와 방향은 무엇이며, 소장님께서 어디에 중점을 두실 계획이신지요.**

먼저 주요 목표는 사할린 한인 동포들의 권익신장이라고 봅니다. 출장소가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337명이 귀국했고 올해에도 350명 정도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발

예정입니다. 사할린동포 특별법 일환으로 유해 봉환 사업, 명예회복 사업도 계속할 계획이고 그 외에 교육, 초청, 문화 교류 등의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해발굴 봉환 사업은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직장 노선이 다시 생긴다면 무조건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와 국제 관계에 있어서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모두 해소가 된다면 사할린동포 2-3세대 방문사업, 영주귀국하신 1세대 분들의 역 방문 사업, 3-4 세대 젊은 층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차세대 사업 등을 발굴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할린주 여러 지방에 계시는 동포분들을 직접 만나서 여러 의견들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2주 전에는 코르사코브에서 이태준(이태출) 회장을 만났고 다음주에는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님과 네벨스크를 방문해서 한인회 회장단과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한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을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고 그분들이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지 직접 듣고 싶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영주귀국희망자들을 위해 사전에 연락을 하여 직접 가서 신청서를 받아오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면에 계속)

## 이 모 저 모

###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처음 극동컵 지적 게임 대회 개최

제5회 극동컵 지적 게임 경기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에서 개최되었다. 지난해에는 행사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었고 올해는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울란우데,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 코르사코브, 크라스노고르스크, 노글리키의 경기 참가자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로 모였다.

이들간 진행되는 경기에 성인 20명과 22개 학교 팀들이 <스포츠적 대상, 장소, 시간>, <스포츠적 브레인 링>, <스포츠적 자신의 경기>, <4인조 활동> 라는 경기 과정에서 경쟁을 치렀다.

학생경 기는 사할린행사장과 동시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대학생들과 학생들 50개 팀들이 경연을 펼쳤다. 막상막하의 경쟁을 치르는 가운데 각 경기가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경기 참가자들은 스포츠적 열광을 더했다.

여러 지역 팀들에게 있어 대규모 팀 경기는 그들의 기량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 지적 운동의 대표자들과 만나고, 그들의 지적 훈련의 실재를 알게 되며, 새로운 경기 방법도 터득하고, 성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 행사는 '로고스'(유즈노사할린스크)지적 클럽, '오스미 녹'(블라디보스톡)지적 클럽이 주최하고, 이르쿠츠크의 '아이큐 게임(IQ-Game)' 창작 그룹이 후원을 했다.

'로고스'클럽은 이미 25년째 학생들을 위한 지적 게임을 개최하고 있다.

사할린주 교육부의 지원 덕에 사할린의 팀들은 정기적으로 지역 및 전국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고 클럽 측이 전했다.

### Кубок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м играм впервые прове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26-27 мар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V открытый Кубок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м

играм. В прошлые годы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лось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но в этом году игроки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Москвы, Хабаровска, Улан-Удэ, Петропавловска-Камчатского, Корсакова, Красногорска, Ноглик встретили уж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вух дней 20 взрослых и 22 школьные команды сражались в таких дисциплинах, как "Спортивный "Что? Где? Когда?", "Спортивный "Брейн-ринг", "Спортивная "Своя игра", "Эрудит-квартет". Одновременно с сахалинской площадкой в школьном зачете кубка сыграли около 50 школьных и студенческих команд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Результаты каждого тура транслировались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что добавляло игрокам спортивного азарта.

Для многих местных команд турнир подобного масштаба — отлич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не только показать имеющиеся результаты, но 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с их тренерскими практиками, узнать новые игровые методики и обозначить точки роста.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е клубы "Логос"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Осьминог" (Владивосток). Также большую организационную поддержку оказала творческая группа IQ-Game (Иркутск).

Вот уже 25 лет клуб "Логос" организует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е игры для школьных команд.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манды регулярно участвуют в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национальных чемпионатах, сообщает клуб.

### 사할린의 청소년들, 동물행동학 학술회의에서 자신의 발견에 대해 발표

3월 26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6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마법의 문으로 들어가세요' 제14회 실용과학 콘퍼런스가 종료되었다.

30개의 연구자들이 발표된 가운데 러시아 연방 일반교육의 공훈 근로자이자 사할린주의 훌륭한 교육자로서 지방 최우수상 수상자인 나탈리아 지미나 심사위원장의 지도 아래 심사위원이 '나뭇잎의 대칭에 환경적 요소가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연구의 작성자 크세니야 산드라코와, 예와 스 보르쉬코와를 비롯해 포로나이스크 7호 중학교의 학생들이 우승자들로서 지난 토요일 사할린주 동물원에서 열린 시상식 무대에 올랐다.

콘퍼런스 총결산으로 우수 연구자들은 학술집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전 수상자들은 사할린주를 대표하여 연방 단계의 경연에 참가할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미 이들은 모스크바 동물원 주최로 열리는 '표트르 알렉세이위치 만테이펠' 전국 청소년 자연과학자 경연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 Юные сахалинцы рассказали о своих открытиях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по этологии

26 мар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вершилась XIV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Войдите в волшебные двери", участие в которой приняли юные ученые из шест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К защите были допущены авторы 30 работ, решением жюри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почетного работника общ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Ф, лауреата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знака "Лучшему", заслуженного педагог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и Зиминной гран-при присужден исследованию о влиянии экологических факторов на симметрию листьев. Его авторы Ксения Сандракова и Ева Сборщикова, а также другие ребята из средней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школы №7 Поронайска стали триумфаторами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прошедшей в субботу в Сахалинском зооботаническом парке.

По итогам мероприятия лучшие работы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в научном сборнике, а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ат право представить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 уже сегодня подана заявка на участ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юных натуралистов имени Петра Алексеевича Мантейфеля, организованном Московским зоопарком.

### 사할린주 미술 박물관 '해양의 섬들' 전시회에 주민들을 초대

이 전시회는 현재의 국경으로서 사할린주 형성 75주년 기념 기획으로 개최하는 가운데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마음을 사로잡는 회화, 그래픽, 수공예품 100여 점 이상이 전시회에 출품되었다. (8면에 계속)

### 사할린동포 특별법을 주제로 회의 소집

지난 3월 25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동포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문제를 회의를 열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우선 특별법에 따른 올해 영주귀국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올해도 작년처럼 영주귀국 대상자로 350명을 선정할 것이고,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알리며, 선정된 영주귀국 희망자들은 10월에 한국으로 떠날 계획이라고 재삼 상기시켰다.

요즘 동포들 사이에서 올해 영주귀국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주귀국을 아예 못 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이에 박 회장은 영주귀국 사업은 2025년까지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고 그리고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과의 영주귀국 설명회에서는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사업은 영주귀국을 원하는 1세 동포가 있을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외교부 측이 밝혔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번에 외교부 측 부탁으로 주한인회에서 본격적

으로 영주귀국 신청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모임에서 둘째 문제로는 영주귀국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2세 문제를 살펴보았다. 모국방문, 영주귀국 등 혜택을 받지 못해 사망한 1세대들의 자녀들은 영주귀국 대상자로 되지 않은 것을 인정받지 못해 주한인회 측에서 이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박순옥 회장이 발표했다. 주한인회에서 준비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청원문을 작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고, 2015년에 2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고 박 회장이 상기시켰다. 사할린동포 특별법으로는 영주귀국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비판이 많고, 소수만이 법의 대상이 되어 과연 사할린동포 다수를 위한 법인가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사할린 동포사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모국으로의 귀환을 한국 사회가 품을 수 있도록 법개정과 적극적인 정책 시행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사할린 사회계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단체들도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법 개정을 위해 앞으로 2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회장은 2015년에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새 단체 -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인회(회장 천영근)의 소개도 있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 사모 / 조지훈

사랑을 다해 사랑하였노라고  
정작 할 말이 남아있음을 알았을 때  
당신은 이미 남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불러야 할 뜨거운 노래를 가슴으로 죽이며  
당신은 멀리로 잃어지고 있었다.  
하마 곱스런 웃음이 사라지기 전  
두고두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잊어 달라지만  
남자에게서 여자란 기쁨 아니면 슬픔  
다섯 손가락 끝을 잘라 핏물 오선을 그려  
혼자라도 외롭지 않을 밤에 물어보리라  
울어서 멍든 눈흘김으로  
미워서 미워지도록 사랑하리라  
한 잔은 떠나버린 너를 위하여  
또 한 잔은 너와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한 잔은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마지막 한 잔은 미리 알고 정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와 같은 명문을 남긴 조지훈의 <사모>입니다. 언어의 조탁성이 뛰어난 <승무>를 떠올리신다면 이 시가 과연 조지훈의 시였을까, 의아해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 듯. 더군다나 이 시는 이 세상에 아예 나오지 못할 뻔 했으니까요. 시인은 <사모>를 끝내 발표하지 않았습니...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 동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출장소장이 되고 싶습니다.'

###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박상태 소장과의 인터뷰

(2면의 계속)

- 3월 초부터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에 영사가 한 분 더 발령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사할린에 영사 한 분이 추가 파견되신 이유는요?

- 네, 3월 4일에 새로 영사 한 명이 발령받아서 근무 중입니다. 사할린동포 특별법으로 인해서 사할린의 업무비중이 커지다 보니 정부에서 영사 한 명을 더 파견했습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소장 입장에서는 영사가 많을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일본 총영사관에는 영사가 10명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은 사할린에 자국민이 약 60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한국 국민을 비롯하여 거의 2만 6천명의 사할린동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목적으로 우리가 이 출장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족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라고 하면 보통 본인, 아내, 자녀를 말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 3대로 보는데 어머니를 포함하여 다섯 명입니다. 아버지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대구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아내는 저와 같이 사할린에 와 있고 자녀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둘다 미국에 있는데 큰딸은 미국에서 교포와 결혼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아들은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 자유 시간을 어떻게 즐기세요?

- 지금은 업무 과약을 하고 있는 중이라 주로 주말에는 사할린 소식을 많이 접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동포분들과 주말에 야외로 가서 낚시를 한다든지,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같이 하면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 우리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은요?

이곳 사할린 지역방송을 보고 문화, 교육, 경제 분야 등 여러분야에서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진출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그 어려웠던 70~80년 세월을 지혜롭게 이겨내시고 우리 한민족의 성실함과 끈질긴 노력들과 1세대 분들의 지식에 대한 높은 교육열이 지금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포들에 대한 존경심과 자랑스러운 마음이 너무나 뿌듯하고 2만 6천 명의 사할린 한인 동포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할린에 계시는, 그리고 영주귀국하신 동포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장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모든 기획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생생 이동밥차' 사할린 동포 카레덮밥 나눔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고향 마을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을 위해 '생생 이동 밥차'의 카레 덮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고 IBK기업은행과 새마을금고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자원봉사자들은 정성스럽게 카레 덮밥 꾸러미를 만들어 481가구, 744명의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올 한 해 총 5000여 명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희성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일제에 의해 강제 이주시킨 한국의 아픈 역사를 품고 다시 조국을 찾아주는 사할린 동포 어



르신들이 존경스럽다"며 "앞으로도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 사할린주, 1월 한 달간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 더 많아

2022년 1월 사할린주의 자연적 인구감소는 349명으로 출생자 수는 409명, 사망자 수는 75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1월에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가 330명이었던 때에 비하면 더 안 좋아졌다. 자연적 인구증가는 쿠릴스크와 유즈노쿠릴스크에서만 나타났다. 유즈노쿠릴스크에서는 자연적 인구증가가 나타나다가 2022년 1월에는 인구증가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혼인은 168건, 이혼은 167건으로 이에 비해 2021년에는 혼인 231건, 이혼 210건으로 주민 신분등록소에 기록됐다.

러시아 내무부 사할린 이민관리국에 따르면 2022년 1월에 사할린과 쿠릴열도 방문자는 1천198명이고 이 중 48.3%가 거주민이다. 사할린을 떠난 사람은 1천713명으로 이 중 87.2%가 이전 거주지 등록을 취소했고, 사할린주 내에서 380명이 주거지를 옮겼다. 사할린의 체류자 감소는 515명으로 집계됐다고 사할린주통계국이 전했다.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Новости РООСК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удет создан досуговый центр для 1-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конца 2021 года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проходит ремонт и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ие медицинского кабинета, в котором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ь приемы таких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как невролога, окулиста и терапевта-кардиолога. Также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ККЦ проходит реконструкция помещения, где будет создан досуговый центр для пожилых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ткрытие планируется в конце апреля 2022 года.



Проект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ого Фонд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осетила Смирных

26 марта президент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побывала с рабочим визитом в Смирных. На встрече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ОСК был поднят вопрос о назначении нового председателя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ввиду неактивности последнего в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 встрече были также рассмотрены вопросы относительно будущих проектов в Смирных. Активисты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пришли к решению о смене председателя, а также решили рассмотреть вариант присоединения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к Поронайскому. Однако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будет вынесено активистами позднее и сообщено в головной офис РООСК.

В ходе поездки были переданы лекарства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которые будут доставлены конечным получателя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Ко Ен Сун (Светлана Яковлевна).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РООСК)

### С 1 апреля дворец Кёнбоккун возобновит вечерние экскурсии

Вечерние экскурсии по королевскому дворцу Кёнбоккун в Сеуле возобновятся в следующем месяце, предлагая посетителям удивительные пейзажи с весенними цветами. Как сообщили 21 марта в управлении по охране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главный дворец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будет открываться с 19:00 до 21:30 в период с 1 апреля по 29 мая, ежедневно принимая до 1.300 посетителей. Для посещения дворца в вечернее время необходимо онлайн-бронирование билетов. Иностранцам бронирование не требуется. Кроме того, с 1 апреля по 31 декабря будет открыт для посещения дворцовый павильон Кёнхверу, который использовался для королевских банкетов и особых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таких как приёмы иностранных посланников. Экскурсионная группа состоит не более чем из 20 человек,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COVID-19. Для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необходимо бронирование.

KBS World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требовали закрытия американски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лабораторий

Новость об обнаружении на Украине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ен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лабораторий спровоцировала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в Южной Корее, где ранее произошел скандал с ввозом на территорию страны из США штаммов заразных микроорганизмов. В Пусане прошла демонстрация с требованием закрыть все воен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биологические центры США в Корее.

"Наша ситуация ничем не отличается от того,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на Украине. Военные США, начиная с 8-го причала порта Пусана, который полностью принадлежит армии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имеют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биологические лаборатории, где проводят опыты для повышения эффективности штаммов различных болезней. Кроме того, каждый год в рамках совместных маневров проводятся и учения подразделений войск химической и биологической защиты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и", - цитируют местные СМИ слова Ким Ён Пхилия, возглавляющего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Граждан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ради мира". "Однако наш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литики и местные власти просто смотрят на это. Считаем, что переходный комитет избр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олжен провести открыт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по факту нахождения в Корее американски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лабораторий и закрыть их", - подчеркнул Ким, вновь потребовав убрать все подобные структуры военных США из Южной Кореи.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понедельник 21 марта в Пусане прошла акция протеста с участ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коло двухсот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К, которые потребовали прекращения американ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учений. Также был поднят и вопрос о воен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центрах США.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выяснилось, что СШ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воих военных баз в Пусане, Енсане, Пхентхэке и в других местах имеют лаборатории и в некоторых из них проводят опыты со штаммами различных микроорганизмов. В частност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опыты проводилис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лаборатории ВС США на 8-м причале порта Пусан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Сеул)

### КВН начинает и выигрывает

Инчхон, 28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Здесь завершился первый турнир по шахматам среди проживающих в Южной Корее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Участников турнира было 11 человек! Самой младшей из 11 участников турнира было 7 лет, самому старшему участнику — 16. Первой победительницей турнира стала Анна Ли (15 лет), второе и третье мест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заняли Марк Ли (9 лет) и Михаил Ким (14 лет).

Организатором и спонсором турнира стал бизнес-клуб КВН, спонсорскую поддержку оказала компания Алло Телеком, самую большую — активистка клуба Екатерина Цай.

«Турнир прошёл успешно, о чём можно судить и по эмоциям родителей и самих участников турнир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его итоги президент клуба Сергей Ин, — У клуба появились стимул и мотивация, чтобы сделать популяризацию шахмат постоянной и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шего клуба. С большой вероятностью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года организуем второй турнир. А в перспективе шахматные турниры хотим сделать традиционными. Бизнес-клуб КВН продолжает стратегию по появлению и реализации все новых и новых молодежных проектов».



Президент бизнес-клуба КВН Сергей Ин вручает награду победительнице турнира.

### Orion не хочет уходить из России

Сеул, 27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мпания «Orion» еще раз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ее новый завод в российском городе Твери начнет свою работу уже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этого года, как и планировалось, несмотря на растущие призыв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покинуть страну.

Кондитерский гигант, который работает на дву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лощадках в России, ожидает, что завод в Тверь поможет в экспанси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Европе.

«Наши дочерние компании в Южной Корее, Китае и России будут органично сотрудничать, чтобы найти контрмеры против трудностей в поставках ингредиентов»,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мпани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оссийская дочерняя компания Orion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рост продаж на 31,5 процента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Ее операционная прибыль также выросла на 8,3 процен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Аналитики ожидают, что пищевая компания продолжит получать солидные доходы в России в этом году.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связанные с ее российской дочерней компанией, нестабильны, компания, похоже,

приложила усилия для ее стабильной работы там», - сказал аналитик NH Investment & Securities Чо Ми Джин. Аналитик Hi Investment & Securities Ли Ген Шин сказал, что Orion может ожидать гораздо более высоких доходов в России, как только геополитическая напряженность ослабнет.

«Несмотря на геополитическую напряженность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Украиной, экспорт из ее российской дочерней компании в Украину составил всего 2 процента экспорта дочерней компании, поэтому влияние на компанию будет ограниченным», — сказал аналитик. — «Ожидается, что компания также минимизирует затраты за счет диверсификации источников импорта ингредиентов».

Однако все большее число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х фирм, ведущих бизнес в России, сталкиваются с бойкотом со стороны потребителей по всему миру, а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оказались под угрозой кибератак со сторон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хакерских групп, таких как Anonymous.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также запретило экспорт 57 видов не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товаров и технологий в Россию и Беларусь, чтобы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экономическим санкция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против них из-за «специальной» России в Украине.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одлит пребыва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решило продлить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в стране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у которых срок действия визы заканчивается в период с 13 апреля по 31 декабр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28 март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и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Под эти меры подпадают 130 тыс. иностранцев. Тем, кто ранее не продлевал визу, срок её действия будет продлён на один год. Иностран- ным рабочим, у которых срок визы завершается в период с 13 апреля по 30 июня, и кто уже продлевал визу на один год, время пребывания в стране продлят ещё на 50 дней. Данные меры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автоматически без необходи- мости подавать заявку. Их принятие связано с усугубле- нием проблемы нехватки рабочих рук в малом и среднем бизнесе, а также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 В РК началась запись детей от 5 до 11 лет на вакцинацию от COVID-19

24 марта в РК была начат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запись де- 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5 до 11 лет на вакцинацию от COVID-19.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стоятельно рекомендует вакцинировать детей, относящихся к группе риска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однако родители и опекуны вправ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ринима- ть решение о вакцинации детей. Записать ребёнка на вакцинацию можно на портале Корей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ncvr.kdca.go.kr). Вакцинация началась 31 марта в 1.200 уполномоченных меди- 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сего вакцинации подлежат порядка 3 млн детей, родившихся в период с 2010 по 2017 год. 23 февраля вакцина для детей, разработанная компанией Pfizer, была официально одобрена Корейским управлением по вопрос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пищевых продук- тов и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Вакцинация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в два этапа с интервалом между дозами в 8 недель.

## В Турции открыта «Сеульская средняя школа»

25 марта в провинции Шанлыурфа на юго-востоке Турции открыта «Сеульская средняя школа», созданная при под- держке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оект нацелен на оказание помощи беженцам из Сирии.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 школу зачислены 257 турецких и сирийских детей. Идея дать школе такое название принадлежит самим ученикам и кафедр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ниверситета Анкары, которая ссылается на одно из событий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Тогда ту- рецкие военные, принимавшие участие 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 ях, создали «Школу Анкары» для корейских детей-сирот. В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осол РК в Турции Ли Вон Ик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ест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Директор школы отметил, что местные ученики многое знают о Корее и Сеуле, и довольны таким названием. Он выразил намерение ввести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предметы, связанные с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и культурой. РК оказывает помощь си- рийским беженцам в Турции с 2016 года. К настоящему мо- менту для них построены шесть полиclinик. В Турции про- живают около 3,5 млн беженцев из Сирии.

## В РК растёт число электромобилей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февраля, в РК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25.015.291 автомобиль, в том числе, 241.182 электромоби- л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27 март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оля автомоби- лей на электродвигателях достигла значимой отметки в 0,96%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автопарка. Ещё в 2014 году их чис- ленность не превышала 4 тыс., а доля составляла 0,01%. Отметка в 0,1%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в 2017 году, и с тех пор она постоянн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Отмечен значительный рост продаж в связи с увеличением размера госсубсидий на при- обречение экологических автомобилей. Основная доля таких машин приходится на машины с гибридным двигателем.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февраля, в РК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1 млн 205 тыс. авто, относящихся к категории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78% пришлось на машины с гибридным двигателем. Однак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мерено с 2026 года исключить их из категории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с низким уровнем вы- бросов вредных веществ, что лишит их различных льгот. В этой связи ожидается рост популярности электромобилей.

## Препарат Lagevrio от COVID-19 одобрен к применению в РК

Пероральный препарат от COVID-19 Лагеврио (Lagevrio) на основе молнупиравира, разработанный аме- риканской компанией Merck, одобрен к экстремному при- менению в Р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23 марта в Корей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по вопрос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пищевых продук- тов и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Препарат импортируется в страну компанией MSD Korea. Это второе пероральное средство, одобренное в РК, после Паксловида от Pfizer, применяемого в стране с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Лагеврио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в лечении больных, относящихся к группе риска, которым Паксловид противопоказан. Между тем, Лагеврио не подходит для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рожениц, а также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в возрасте младше 18 лет.

(RKI)

## Южная Корея передумала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мирного атома

**Избранный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Юн Сок Ёль, который победил на состоявшихся 9 марта выборах, заявил, что страна намерена пересмотреть отказ от атомной энергетики, аннулировав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программу нынешн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Страна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собирается возобнови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ЭС как у себя, так и за рубежом.**

Меры по отказу от атомной энергетики были ини- циированы президентом РК Мун Чжэ Ином, когда тот пришел к власти в 2017 году. Это было спровоцировано опасениями возможного повторения аварий, анало- гичных тем, что произошли на японской АЭС Фукусима. Нехватку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планировалось компенсиро- вать за счет приоритетного развития электростанций, действующих на газе, а также новых и возобновляе- мых источниках энергии (НВИЭ). Однако данная про- грамма Мун Чжэ Ина сразу же спровоцировала критику со стороны специалистов и бизнеса. По мнению мно- гих экспертов, АЭС в Южной Корее невозможно пол- ностью заменить, кроме того, все это спровоцирует значительный рост стоимости электричества, а также приведет к застою передовых производств и оттоку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Победивший на недавних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ппозиции Юн Сок Ёль, который при- мет рычаги управления страной 10 мая этого года,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л действия Муна в отношении мирного атома Южной Кореи ка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преступле- ние", пообещав "полностью ликвидировать меры по от- казу от АЭС" и наоборот превратить Корею в "мирную атомную супердержаву".

На днях Юн более подробно пояснил, что он наме- рен делать на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о-первых, при нем Южная Корея возобнови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энерго- блоков АЭС, коих запланировано возвести в стране до 2029 года шесть штук. Так, согласно плану Юна, в 2022-2023 гг. в уезде Ульчжин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ая Кенсан, что на юго-востоке РК, будут возведены реак- торы Синхануль 3 и 4, которые перед началом прав- ления Муна уже начали строить, но затем заморозили проекты, следуя программе по отказу от АЭС. В 2026-2027 гг.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реакторы Чхонджи 1 и 2, а затем в 2028-2029 гг. еще два атомных энергобло- ка.

Во-вторых, Юн заявил, что даст согласие на прод- ление срока эксплуатации некоторых блоков АЭС, ко- торые формально выработали срок в 30 лет, но, со- гласно заключению экспертов, вполне еще могли бы работать по 10 и более лет при надлежащем обслужи- вании и уходе. До 2030 года в Южной Корее, согласно плану Мун Чжэ Ина, планировалось закрыть десять реакторов, хотя специалисты считают их способными продолжать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Приход нового лидера позволит работать дольше реакторам Вольсон 2,3,4, Кори 2,3,4, Ханпит 1,2 и Хануль 1,2.

В-третьих, планируется повысить загрузку атомных электростанций, которые при Мун Чжэ Ине работали в среднем на 70 процентах мощности, тогда как Юн на- мерен увеличить показатель до 85 процентов.

Эксперты же указывают, что программа по отказу от АЭС при Мун Чжэ Ине уже стала давать сбои, о чем изначально и предупреждали независимые специали- сты, указывая на дороговизну и неэффективность по- добных шагов для условий Кореи. РК почти полностью зависит от импорта энергоносителей, тогда как НВИЭ пока еще не могут быть полноценной заменой тради- ционных видов.

В 2015 году в Южной Корее доля АЭС в общей электрогенерации составляла почти 30 процентов, но

затем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упал до 22,5 процента в 2018 году, следуя программе отказа от мирного атома. Од- нако последовавший затем скачок цен на нефть, газ и уголь заставил опять обратиться к АЭС, которые по итогам 2021 года вырабатывали уже 27,8 процен- та. Согласно плану профессора Чу Хан Гю, который в штабе советников Юн Сок Ёля отвечает за политику в сфере энергетики, нов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собирается довести долю атома в общей генерации в 2030 году до 35 процентов, параллельно нарастив долю НВИЭ до 20-25 процентов.

В-четвертых, Южная Корея намерена активно пред- лагать свои услуги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ЭС. Юн Сок Ёль планирует до 2030 года построить в различных странах не менее десяти энергоблоков. До сих пор Южная Корея может похвастаться только одним контрактом с ОАЭ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четырех реакторов, но соглашение было подписано еще в 2009 году, а с тех пор у корейцев не было успехов по части контрактов на возведение АЭС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Сеул все это время предлагал другим странам свои услуги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АЭС, но при этом у потенци- альных клиентов всегда возникал законный вопрос: "Если АЭС, которые вы предлагаете строить, такие хорошие, а атомная энергетика такая перспективная, то почему вы у себя в стране свернули всю программу развития отрасли?!"

Теперь же Корея намерена это исправить, наде- ясь на растущий спрос на атомные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Согласно появившимся недавно данным Всемирной ядерной ассоциации (WNA), около 30 стран мира, у ко- торых пока еще нет ни одного атомного энергоблока, хотят построить у себя АЭС, а еще 20 государств рас- сматривают мирный атом как перспективное направ- ление обеспечения своих экономик электроэнергией. Корейцы намерены составить конкуренцию мировым лидерам сфер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ЭС, среди которых значатся компании из России, Китая, Европы, США и Канады.

В среде экспертов-ядерщиков и инженеров победу Юн Сок Ёля н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многие вос- приняли с облегчением именно по причине улучшения перспектив отрасли. Из-за отказа от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ЭС у себя в стране и отсутствия новых контрактов за рубежом крупные 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отрасли, включая Doosun Group, Korea Hydro & Nuclear Power, столкнулись с оттоком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а также сокращением мощностей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В итоге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ая и дорогая по первоначаль- ным инвестициям отрасль стала испытывать кризис, который, как надеются специалисты, теперь получится преодолеть.

"Многие просто ждали, когда Мун Чжэ Ин уйдет и мы опять вернемся к атомной энергетике, потому что и экономистам, и инженерам было понятно, что эконо- мике Южной Кореи без АЭС придется очень непросто. Во многом мирный атом не имеет себе аналогов по части удобства 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мы дождалась и ждем теперь возобновления строек АЭС у себя, а затем возможно и за рубежом", - отме- тил один из сотрудников компании Doosun. Впрочем, он признал, что теперь придется решать и новые про- блемы, среди которых - подготовка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а также срочная необхо- димость созда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хранилищ для за- хоронения отработанного ядерного топлива. В Корее, как выясняется, многие хранилища уже почти полно- стью заполнены, тогда как сейчас действует 24 атом- ных энергоблока и еще четыре строятс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 "Полигранд"

Тел.: 42-49-54, 42-49-89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месяц — 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ретился с российскими паралимпийцами

Спортсмены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чемпионате России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среди лиц с поражением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ПОДА).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ходили с 27 по 30 марта на склонах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 Вы выкладывали все силы, чтобы достойно представить нашу страну на Играх. К сожалению, в спорт вмешалась политика, и Россия лишилась участия в Паралимпиаде. Но вы — люди, сильные духом. На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играх в Ханты-Мансийске вы показали и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одготовки, и волю к победе, и отличные результаты. И мы всегда будем поддерживать вас. Создавать условия для тренировок, проведен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Знайте,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сегда вам рада, — обратился к спортсменам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стровные трассы уже хорошо знакомы паралимпийцам. В феврале атлеты готовились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к Паралимпиаде в Пекине вместе с Александром Алябьевым и Алексеем Бугаевым. Спортсмены выступают за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и Москву и входят в состав сборной России.

Бронзовый призер Паралимпиады Александр Алябьев на зимних Играх паралимпийцев «Мы вместе. Спорт» в Ханты-Мансийске поднялся на вторую ступеньку пьедестала. А на чемпионате мира в январе этого года завоевал второе место.

Заслуженный мастер спорта России Алексей Бугаев стал лучшим в Ханты-Мансийске. На счету титулованного спортсмена — три золотых паралимпийских медали, шесть золотых — чемпионатов мира. А на мировом первенстве в Норвегии Алексей завоевал пять наград — «золото», два «серебра» и две «бронзы». Сегодня спортсмену исполнилось 25 лет, подарок в честь юбилея вручил чемпиону губернатор.

—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мы встречаемся со спортсменами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и стран. Проводим совместные тренировки, тянемся друг за другом и вместе растем. На Сахалине прекрас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в дисциплинах слалом и слалом-гигант. Склоны шикарные, хорошие перепады. Надеемс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оявится полноценная трасса и для скоростного спуска, — поделился Алексей Бугаев.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ручил региональному министерству спорта проработать этот вопрос к следующему сезону.

— Мы каждый год приезжаем на Сахалин на сборы и соревнования. Остров стал для нас уже родным. Организация чемпионата России, как всегда, на высоте. Спортсмены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прекрасную подготовку трасс. Нам предоставили самые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проживания, все наши пожелания слышали и шли навстречу, — сказал старший тренер сборной России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лиц с ПОДА Александр Назаров.

Напомним, сахалинские трассы на чемпионате России покоряли 15 атлетов,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Москву,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Красноярский, Камчатский и Алтайский края, Иркутскую, Кемеровскую и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и.

## 825 дворов и 23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а благоустроя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22 году

Программу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рассмотрели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этом году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охватит не менее 700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125 дворов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уют в рамках областной и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 в том числе «1000 двор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 Это план минимум. Нужно стремиться к тысяче объектов в программе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Сейчас сходит снег, люди не должны ходить по ямам и перепрыгивать через лужи в своих дворах,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не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поступают обращения с просьбой навести порядок во дворах. Все их берем в работу. Масштабный ремонт пройдет не только в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е, но и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75 дворов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в Холм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68 — на Итуруп, 44 —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41 — в Долинском, 38 — в Невельском, 38 — в Охинском, 33 —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 С 1 апреля в южны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начнется дефектовка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Специалисты администраций и волонтеры обследуют дворы и определяют, в каком ремонте они нуждаются. На севере Сахалина и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еще лежит снег, поэтому обследование начнется с 15 апреля,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Завершить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в южных районах планировалось к 1 июля, в северных — к 1 августа. Н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 ускорить работы на две недели.

Сообщить о ямах в своих дворах жител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могут с помощью Сахалин.онлайн. На портале можно отследить ход ремонта и оставить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по качеству проведенного ремонта.

Кроме того, информация о ходе выполнения работ будет доступна на интерактивной карте. Там будет меняться статус объектов: синий цвет — работы запланированы, желтый — в работе, зеленый — работы выполнены и приняты, красный — имеются нарушения и отставания от графика.

В этом году также предстоит обустроить 23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а, которые поддержали большинство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и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

ного 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Планируется благоустроить общественную территорию с зоной отдыха в Воскресенском, дог-парк в Курильске, детскую спортивную площадку в селе Вал, мемориальную площадку в селе Арги-Паги. Скверы появя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квер Авиаторов), Аниве, Долинске, Охе, селах Онор, Ныш и Малокурильское.

##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корпус школы №30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озведут за два года

Новое здание примет 550 ребят, и школа в Луговом сможет перейти на обучение в одну смену. Ранее такую задачу регионам поставил Президент РФ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Согласно распоряжению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вторая смена в российских школах должна быть ликвидирована к 2025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один из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успешно справляющихся с поставленной президентом задачей.

По проекту новый корпус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трехэтажный шестиугольник с большим открытым пространством внутри — атриумом. Это помещение станет связующим между остальными блоками школы. Подготовку к строительным работам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месте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и инициативными жителями микрорайона.

— В феврале на встреч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Игоревича Лимаренко с жителями Лугового мы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начнем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корпуса. Сегодня мы на объекте вместе с депутатами и родителями видим, что работы идут. Территория огорожена, строительная техника на месте, завозятся материалы, — отметил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есь комплекс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т будет выполнять ООО «Сфера». На возведение нового корпуса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бюджетов выделено свыше 1,2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Объект будет отвечать всем требованиям современной школы: большой спортивный и обеденный залы, учебные кабинеты с новой мебелью и оборудованием, лаборантские, классы трудового обучения и мастерские, виртуальный музей, IT-лаборатории, конференц-зал.

Оконча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отделочных работ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второй квартал 2024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к 1 сентября этого же года школьники сядут за новые парты.

Отметим, чт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развернута программ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школ. В этом году в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свыше 22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возведение школы на 300 мест в Ногликах и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на 400 мест в Шахтерске. В ближайшие два года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еще ряда объектов образования на Итуруп и Кунашире. На финальной стадии находи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школы-детского сада в Кировском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 147 миллионов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олучит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 переобучение сотрудников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была озвучена на заседании антикризисного штаб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Главным вопросом стала ситуация на рынке тру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охраняется один из самых низких уровней безработицы в стране — 0,5 процента. Число обращений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поисках работы остается на прежнем уровне. На учете в центре занятости состоят 1500 человек. При этом доступно 8000 вакансий. Теперь не только безработные, но и граждане, оказавшиеся под угрозой увольнения,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ами центра занятости.

— В свете последних событий мы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им за ситуацией на рынке труда. Мы получаем ежедневную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от всех ведущих предприят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обходимо сохранять стабильную ситуацию, чтобы люди были обеспечены работой и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ой,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ля пред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сохраняют трудовые коллективы,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принимаются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а переобучение сотрудников получит 147 млн рублей.

Агентство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ализует свыше 30 програм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ереподготовки, которые формируются по запросам бизнеса.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бучение организуют на базе предприятий.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ройдет переподготовка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в сферах строительства, услуг и туризма.

Действует также более 25 програм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и соискателей. Если претендент на должность не обладает необходимыми навыками, его могут отправить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учение. После соискатель сдает демонстрационный экзамен, и принимается решение о ег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Среди наиболее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 машинист экскаватора, сварочные технологии, ресторанный сервис. Программ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ереподготовки действующих сотрудников и соискателей бесплатны для работодателей.

На рынке труда создаются условия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на работу студентов. Более 12 тысяч человек сегодня получаю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на Сахалине. Студентов приглашают на практику путем открытых собеседований, на работу по сменам в свободное от учебы время, в студенческие отряды на лето. На сегодня от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

рильчан подано более 300 заявок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Получить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на интерактивном портале службы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https://rabota.sakhalin.gov.ru/czn> и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Агентства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https://archksakhalin.ru/>.

## Сахалинцев призывают активнее подавать заявки на догазификацию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одолжается работа по догазификации домов.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ет составлена электронная карта социальной газификации,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профильному ведомству ускорить процесс.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ходе совещ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Единой России» и газ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в режим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связи также приняли сотрудники администрац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рсаковского и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ов.

—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догазифицировать 5 тысяч сахалинских домовладений. Призываем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не затягивать с подачей заявок в газ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Лучшее время начать догазификацию своего дома — прямо сейчас. Не надо дожидаться холодов и отопительного сезона, лучше уже сейчас приступить к подготовке дома к приему газа,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энерге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хаил Гузенко.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жно на сайте Единого оператора газификации (<https://connectgas.ru/>) или в АО «Газпром газораспределение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адрес: пр. Победы, 39/ Холмское шоссе, 2, тел: +7 (4242) 49-63-33, email: [info\\_shl@gazdv.ru](mailto:info_shl@gazdv.ru), сайт: [gazdv.ru](http://gazdv.ru) (заявку можно оставить онлайн).

Жителям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нужно обращаться в АО «СНК», адрес: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 Мира, 420, сайт: <http://soc65.ru> (заявку можно оставить онлайн), тел: 8-800-222-94-65.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азывает поддержку желающим газифицировать свои дома. Каждый домовладелец может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до 152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подготовку дома к приему газ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действу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льгота для отдельных категорий граждан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газоиспользующе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 до 50 тысяч рублей.

Также Газпромбанк предоставляет сахалинцам кредит специально под нужды установки внутридомового газ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омовладелец может взять кредит, установить внутридомовое газ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а затем закрыть этот кредит, используя компенсацию о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боту по догазификации региона активно включена и «Единая Россия». С 17 марта волонтеры партии обходят дома сахалинцев и проводят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процедуре подключения к газу. Добровольцы рассказывают о конкретных действиях для подключения дома к газу, дают контакты единого газового оператора и 11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проектированием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внутридомовых газовых сетей, а также монтажом оборудования.

— К 2025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одключить к газу 11 тысяч домов. На островном шельфе добывают газ, и будет справедливо, если через три года мы по максимуму газифицируем всю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 и предприятия, и промышленные объекты, и, в особенности, жилые дома, — подчеркнул секретар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В масштабах страны программа догазификации реализуется в рамках поручений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который в 2021 году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ПАО «Газпром» — в газифицированных ранее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выполнить в 2022 году подключение домовладений к сетям газоснабжения безвозмездно и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двести газ до границ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собственников. К настоящему времен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брано около 3565 заявок на догазификацию, заключено свыше 1200 договоров, газовые сети построены до границ 1651 домовладений.

##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предлагают выбрать гимн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Голосование за песню, которая станет музыкальным символом области,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VII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Песня Сахалину». В нем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поэты, композиторы, аранжировщики и исполнители,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 профессионалы и любители.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е продолжится до 1 апреля на сайт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Также свою оценку работам даст экспертное жюри.

Прием заявок проходил с января этого года. Всего в рамках конкурса «Песня Сахалину» представлено 33 композиции. Они посвящены 75-летию со дня образования области, островным городам и селам,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различных профессий и человеческим ценностям.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за понравившиеся работы было отдано более 400 голосов.

— Авторы лучших песен получают заслуженные награды. При этом в рамках конкурса будут отобраны работы, которые могли бы стать гимном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Направим их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суждения, — подчеркнула областной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Нонна Лаврик.

Отметим,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а состоится гала-концерт. Он пройдет 16 апрел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인수위는 732만 재외동포 위한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라"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100만인 서명 동포·시민연대,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기자회견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재외동포처 설립 등 촉구

국내외 92개 단체가 참여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100만인 서명 동포·시민연대'(이하 동포·시민연대)는 3월 24일 국회 소동관에서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바란다'란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인수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처) 설립 등 732만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동포·시민연대에 참여한 92개 단체를 대표해 임채완 (사)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조동제 (사)재외동포포럼 이사장, 이효정 (사)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손정진 (사)너머 이사, 최상구 KIN(지구촌동포연대) 사무국장,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이선상 (사)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 채예진 대한고려인협회 부회장, 김용선 KC동반성장기획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동포·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은 전 세계 재외동포 수가 732만이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처) 설립을 공약했다"며 "새 정부 인수위는 이러한 공약을 필히 이행한다는 신뢰감을 보여주기 위해 재외동포법 제정을 기반으로 재외동포청(처) 설립안을 반드시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사회의 다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파악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모국과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더 큰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을 놓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을 대표로 낭독한 임채완 (사)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은 새 정부 인수위에 ▲헌법 정신에 부합한 재외동포정책을 펼칠 것 ▲재외동포 관련 선거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추진할 것 ▲재외동포 정책 컨트롤타워로 '재외동포처'를 설립할 것을 요청했다.

임 이사장은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돼 있으며, 재외동포는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며 "국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모두 포용하는 재외동포정책이 시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동포,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합동위원회를 조직해 종합적·체계적·포용적인 재외동포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재외동포 정책은 우선순위에선 뒷전으로 밀려나며 재외동포의 위상 강화와 권익향상 등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었다"며 "재외동포정책의 필요성이 증대한 만큼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재외동포청(처) 설립 공약이 실제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이를 인수위원회가 반드시 국정과제로 채



국내외 92개 단체가 참여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100만인 서명 동포·시민연대'(이하 동포·시민연대)는 3월 24일 국회 소동관에서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바란다'란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인수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처) 설립 등 732만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택·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처' 설립에 대해 "재외동포 업무는 여러 부처로 산재돼 있어 부처 간 협조와 조율이 필요하며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부처 이기주의 악습에 빠져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포들에게 오히려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외동포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 부처 간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 직속 재외동포처로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100만인 서명 동포·시민연대'는 재외동포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독립된 전담 기구 설치·운영 등이 포함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내 시민단체와 동포단체, 해외 동포단체와 언론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

데 출범한 단체로, 현재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100만인 서명 동포·시민연대' 참여 단체는 다음과 같다.

- 세계한인평화연대, (사)너머, (사)동북아평화연대, (사)재외동포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흥사단, KIN(지구촌동포연대), 광주고려인마을센터, 광주이주민종합지원센터, 경상북도고려인통합지원센터, 국제코리아재단, 다문화이민지원센터, 대한사랑회, 더큰이웃아시아, 동북아경제문화교류협회, 민주평화시민연대, 세계한인여성협회, 아시아발전재단, 아시아의친구들, 안산고려인지원센터 미르, 연해주동북아평화회, 외국인도움센터, (사)원코리아, 인천고려인문화원, (사)조각보, 초록별사회적협동조합, 최재형기념사업회, 충현원, 한류열풍사랑, 한

(재외동포신문)

## 천안시 청룡동 행복기움지원단 사할린한인 한국어 교육 개강



충남 천안시 청룡동(동장 임병학)은 30일 청룡동 행복기움지원단(단장 이문자)이 사할린 한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청수 2주거 행복지원센터에서 개강해 화제다.

사할린 한인들은 1992년 외무부 및 적십자사 주관으로 영주 귀국을 시작해 천안시에는 101명이 입국했으며 현재는 63명이 생활하고 있다.

일부 사할린 한인 2세는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고국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룡동 행복기움지원단은 사할린 한인 한국어 교육지원 사업을 마을복지사업 특화사업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사할린 한인들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병학 동장은 "마을복지사업을 통해 사할린 한인들의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들을 위한 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출처: 충청일보)

##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경기도 화성시 개막

###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 모국 중소기업 수출 돕기 위해 한자리에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장영식)가 주최하는 '제23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가 3월 29일 경기도 화성시 수원과학대 신텍스(SINTEX) 그랜드볼룸에서 막을 올렸다.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에 초점을 맞춰 4월 1일까지 나흘간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저녁 열린 개회식에는 66개국 138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월드옥타 회원, 국내 중소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했다.

오프라인 행사장에는 월드옥타 장영식 회장, 차봉규 이사장, 이마태오 수석부회장 등 집행부와 이영현·천용수·박기출·하용화 명예회장, 각국 지회장을 비롯한 월드옥타 회원들,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병태·서진형·고석화·김우재 명예회장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월드옥타 회원 등 600여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원국 의원, 강득구 의원, 국민의힘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조명희 의원, 한무경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 양정숙 의원 등도 행사장을 직접 찾아 재외동포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장영식 월드옥타 회장은 개회사에서 "월드옥타는 모국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품을 하나라도 더 수출시키는 나라사랑 애국운동을 하는 단체"라며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로서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출 파트너이자 플랫폼 역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대회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 화성시의 우수한 기업을 월드옥타 회원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한인 경제인들은 수출사각지대에 놓인



월드옥타가 주최하는 '제23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회식이 3월 29일 오후 6시 경기도 화성시 수원과학대 신텍스(SINTEX)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업들에게 수출 물꼬를 터어주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대회 2일차에는 국내 중소기업과 월드옥타 회원 간 일대일 수출상담회와 수출 쇼케이스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열리며, 수출상담회에는 화성시 중소기업 64개사가 참가한다.

대회 3~4일차에는 월드옥타 회원 간 네트워킹 교류회를 비롯해 협회 발전을 논의하는 이사회와 임시총회 등이 이어진다.

월드옥타는 1981년 4월 한국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한민족 경제공동체 구현 등을 목표로 창립한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로, 현재 66개국 138개 지회에서 정회원 7천여명과 차세대 회원 2만5천명 등 3만2천여명의 한인 경제인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외동포신문)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이 작품들은 사할린주 미술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사할린, 극동, 러시아 및 소비에트의 화가들의 작품이다. 다양한 시대의 화풍 속에 작가들은 사할린과 쿠릴 섬들의 외진 자연의 모습, 어부들의 노동 일상, 섬 변경의 일상생활,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들의 전통 수공예품들을 붓으로 표현했다.

전시회는 3월 31일(목)부터 시작해 5월 29일까지 열린다. 미술 박물관 측이 전했다.

##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приглашает на выставку «Острова в океане»

Проект посвящен 75-летию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современных границах

В экспозиции представлены более 100 произведений живописи, графики,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охватывающие период с 60-х годов XX века по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х авторами являются сахалинск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российские и советские художники, произведения которых хранятся в фондах остров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На полотнах разных времен мастера кисти отразили уголки природ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трудовые будни рыбаков, повседневную жизнь остров-

ного края, традиции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острова.

Выставка открылась 31 марта и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29 мая 2022 год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 사할린, <에코 페스트(친환경 축제)> 준비

사할린에서 처음으로 <에코 페스트(친환경)> 포럼-축제가 열린다. <2021 오스트로와> 포럼에서 사할린의 여학생 예와 레위나(18세)의 이 기획이 러시아 청년청의 장려금을 받았다고 주 청년사업청이 전했다.

<에코 페스트>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할린에서 진행되며 올해 가장 대규모 환경보호 행사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포럼이 3일간 진행되는 가운데 각 행사 일정마다 독특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관람객들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자연에 대한 의식적인 관계라는 주제와 함께 많은 흥미로운 활동에 몰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날 <에코 페스트>는 사할린주 몇몇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환경보호 달리기, 사할린 해변에서 포럼 참가자들이 쓰레기들을 치우는 스포츠 행사가 진행된다.

둘째 날은 친환경적 사고를 목적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가 가진 문화·휴식공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태양 요가, 신선한 공기 속에 영화 감상, 전문가들과 대화 등에 모두를 초대한다.

셋째 날은 축제의 날로 가장 풍성한 행사가 될 것으로 보

인다. 천연 재료로 공예품 만들기 활동교실, 축제 행사장에서 도전게임 진행, 에코박람회, 음악 공연을 비롯한 여러 행사도 펼쳐진다.

## На Сахалине готовятся к "ЭкоФесту"

Впервые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ет форум-фестиваль "ЭкоФест". На форуме "Острова 2021" проект 18-летней сахалинки Евы Левиной получил грантовую поддержку Росмолодеж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ЭкоФест" пройдет на Сахалине уже в июле — с 8 по 10 число.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это станет самое масштабное экологичес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года. Форум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течение трех дней, каждый из которых имеет свою уникальную и разнообразную программу. Посетителей ждет полное погружение в тему осознан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природе в жизни каждого из нас и масса интересных активностей.

Первый день "ЭкоФеста"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сразу в нескольких точк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будет экомарафон, спортив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а котором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очистят от мусора пля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торой день пройдет в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ени Ю. Гагарина. Он будет посвящен экомышлению. Всех ждет солнечная йога, показ фильма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и живое общение с экспертами.



Третий день — фестиваль, он будет самым богатым на события: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изделий из натура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квест по площадкам фестиваля, экомарка, живая музыка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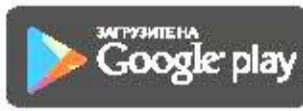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http://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bilet.sakh.com](http://bilet.sakh.com)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hr/>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